

18-341 to 18-343: 아버지와 나

 hdhstudy.com/1967/18-341-to-18-343-%ec%95%84%eb%b2%84%ec%a7%80%ec%99%80-%eb%82%98/

아버지와 나

1967.10.01 (일), 한국 구진봉 성지(서울 북악산)

18-341

아버지와 나

[말씀 요지]

천주의 중심이 되어야 할 아버지와 나와의 부자 관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다.

18-341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충신과 효자가 되자

타락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심정적인 내적 인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내적 심정을 다시 복귀한 터 위에서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고 내 자신이 그 기준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복귀섭리는 이 길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헤치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렸기에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이 복귀의 길은 심정세계에서는 한없이 가까우나 심정세계를 벗어났기에 한없이 먼 거리에 있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역사상의 많은 선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희생해 나왔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조들이 희생하고 간 복귀섭리의 전체를 수습하여 연결짓는 날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오셨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뜻을 이룰 수 없기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인간이 영계와 하늘과 땅을 대신하는 개체가 되어야 새역사의 기점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선열의 애혼(哀魂)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중시하고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효자 효녀 충신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중에서도 최상의 기준에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 충효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역사노정의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아벨의 심정기준, 노아의 120년 정성 등, 역사노정의 그 누구보다 앞선 입장에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충효의 기준은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잘 싸우는 것보다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역사적인 결실체이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심정을 중시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 길을 재개척해 나온 것이 선생님이 걸어온 30여 년의 길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 드리며 나온 길이다. 이 목적을 위해 모인 무리가 바로 통일의 무리인 것이다.

이제 7년노정 마지막 해의 3분의 2가 지났다. 그동안 많은 역경을 거쳐 나왔다. 집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을 한 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자리는 하늘과 땅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원하는 효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을 대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 효자 충신은 마음, 뜻, 성품을 다하는 존재다. 그러한 입장이 하나님이 공인하는 기준이다.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같이 대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불효는 없다.

타락 전 아담의 심정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입장에 서지 못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

처럼 큰 불효는 없다.

부모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가정에 평화와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자는 효자가 될 수 없다. 부모의 재산이 무너질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파탄되었으니 생명, 재산, 평화, 이상을 유린하는 자리에서는 충신 효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 내 일같이 안타까워 했으며, 내가 언제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 위업을 느꼈으며, 내가 언제 아버지 가정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몸부림치며 싸워 보았느냐?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효가 되지 못하고 불충 불효가 되었던 것이다.

개인의 것은 교회의 것, 교회의 것은 국가의 것으로 생각해야 하며, 국가의 것이 바로 세계와 천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무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역사노정에 자기 것과 자기를 주장했던 사람치고 충신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18-343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달려가자

통일신도들은 종국에 자신을 제물삼아 사탄을 물리치는 위치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재산이 위협에 직면할 때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7년노정의 마지막 고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은 이 노정이 지나갈수록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선생님도 자신을 재고하며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비운에 사라지는 그 장면을 몇천만 번 생각했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또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타지 않고 남아지는 내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국가와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이 일본에 가면서 120일을 특별 기간으로 정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뜻 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갔던 어떤 식구가 만나줄 수 있는 가 하고 선생님에게 물어 왔었다. 그래서 10월이 지난 후에 시간을 내 보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울음섞인 음성으로 말씀하심)

세상으로 떨어진 뒤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사정하며 당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도 선생님도 못견딜 일이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기뻐할 선생님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회에 들어올 때, 자기를 내세우며 알아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말없이 사라졌다.

선생님은 이 7년노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서든지 도취하기를 바라고 있다. 선생님은 식구들에게 도취되어 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앞에 갈구하는 자리를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 그 자리가 바로 제물의 자리요, 제단이다.

이제 불원간 21년이 지나게 된다.

공산당은 8대를 넘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 받으려면 효자가 되는 것 외의 길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탕감복귀하여 심정적 기준을 넘지 못하면 사탄의 참소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승리한 선생님의 뒤를 따르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중에는 자기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따라보는 자도 있고 그대로 따라오는 우직한 자도 있다. 생사를 초월하며 무조건 따라오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달리는 말 등에 붙은 자와 같아서 최소한 말이 가는 곳까지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명을 받지 않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효자이다.

먼저 하나님이 공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인을 받고 오신 분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다만 아들딸 되기 위한 사랑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벨의 사명을 다한 후에는 가인을 동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일이 끝난 후에는 영계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7년노정은 지상에서 부모를 중심하고 자녀가 되는 기간이다. 그런 후에는 영계가 동원되어 형제의 인연을 맺으려 한다.

천지법도를 가는 선생님의 이 길을 어기지 말라.

이제부터는 선생님의 직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왔다. 내가 잘못하면 불효의 자식이 나온다. 지금까지 어머니와는 심정의 중심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 큰 사명이었다. 이것이 심정의 제 2차 십자가노정이었다.

36가정, 72가정, 120가정은 축복가정들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통일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존재이다.

기성교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이 해와 국가로 등장했다. 원래는 영국이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찾아야 할 국가가 미국과 독일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통일교회 식구 이상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울타리가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잘못하면 대신자가 될 수도 있다.

4개국을 중심하고 40개국에 120개 성지가 택정되었다.

7년노정은 부모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부터 남은 문제는 선생님 가정에 대한 것이다.

지금부터 7년노정의 나머지 3개월 동안 총동원해야 한다.

선생님이 일본에서 돌아온 후, 왜 식구들이 나태해져 있는가? 선생님은 10월 12일까지는 야외 생활을 할 것이다.

선생님이 식구들에게 120일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나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도중 비가 내려 우산으로 노트를 가리고 기록하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